

# 함평군, 양봉 특화 방제 전문 기술 교육 실시

###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병해충 관리 전문 교육’ ‘양봉 현장 궁금했던 사항 질의 응답 유익 만족’

함평군이 양봉 농가의 방제 기술 향상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함평군은 27일 “관내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바이러스 예방 및 병해충 관리 전문 교육’을 지난 25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이상기후와 꿀벌 면역력 감소에 대응해 양봉농가의 방제 기술력 향상을 위해 추진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꿀벌 바이러스 예방, 꿀벌 응애 및 병해충 방제, 양봉현장의 애로사항과 궁금사항에 따른 질의 응답 시간 등이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농가는 “이번 교육으로 월

동 후 발생한 꿀벌 개체 수 감소 원인을 파악해 이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또한 양봉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도 유익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꿀벌은 양봉농가의 소득원일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유지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원활한 양봉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함평군 양봉농가는 135농가 20,000여군이 등록돼 있으며 80여명의 양봉연구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함평=김광춘기자



# 영암군 신북면, 4개 외국어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현수막

영암군 신북면(면장 박종조)이 지난 24일 쾌적한 환경 만들기의 하나로 4개 외국어로 제작한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다. 이날 현수막 설치에는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주민 증가 추세에 맞춰 올바른 쓰레기 배출을 홍보하기 위한 조치.

신북면은 영어·중국어·태국어·베트남어로 쓰인 현수막을 제작해 외국인주민이 질차와 방법을 몰라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지 않도록 했다.

박종조 신북면장은 “외국인주민도 동참하는 쾌적한 지역 환경 만들기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영암=조대호기자



# 무안군, 청렴시책 추진상황 점검...청렴도 향상 박차

### 청렴 특별전담팀 3차 회의 개최

무안군은 지난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부군수 주재로 15개 팀 팀장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 특별전담팀 3차 회의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차 회의에 이어 청렴시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부패 취약분야 개선 노력으로 무안군 청렴도를 향상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특별전담팀 2차회의 결과 검토보고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상황 ▲특별전담팀 추진상황 ▲부패 취약분야 개선 ▲청렴도 향상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렴친절 순회교육, 인사조직문화 개선 특별전담팀 운영, 청렴 아침방송, 청렴 카드 뉴스 제작 등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공유가 이뤄졌다.

김성훈 부군수는 “전 부서가 반부패 청렴시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군 청렴도 향상에 박차를 가하자”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 목포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중점 지도점검

### 학교 매점·주변 문방구 등 100개소

목포시가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학교 주변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한 중점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총 점검대상은 학교 매점, 학교 주변 문방구·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00개소가 해당된다.

이 기간동안 위생과 직원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 14명으로 구성(7개반)된 점검반은 ▲영업신고 사항, ▲원재료 관리,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관리, ▲시설 기준 관리, ▲건강진단 및 위생 교육, 조리사 고용, ▲영업자 준수사항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진열 및 판매 여부, 개인위생 관리, 보존기준 준수, 위

생적 관리 여부, 어린이 정서저해식품 판매금지 준수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될 시 적법한 행정처분도 단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상시 법적 기준 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구매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업소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 영광실내수영장 9월 1일부터 정상운영

### 노후기계 설비와 건강교실 바닥재 교체 등 보수공사 완료



영광군은 2024년 전남체전 준비 및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휴장했던 영광실내수영장을 9월 1일 개장한다고 밝혔다.

영광실내수영장은 2011년 준공후 12년이 지나 일부 누수 등 시설노후가 진행되고 있어 국비 지원을 받아 금번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였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보일러, 공기순환기 등 노후 기계설비를 교체하고 수영장 실내 타일 줄눈과 LED조명 및 건강교실 바닥재 교체, 창호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보수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겨울부터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격일제로 운영된 수영장이 정상운영 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6:00~21:00, 토·일요일 공휴일은 9:00~17:00, 월요일은 정기휴일로 쉰다.

강습반 운영은 9월에는 자유 수영, 10월부터는 강사 등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기초·중급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영광=서희권기자

# 신안군, 양파도 벼농사처럼 100% 기계화 추진한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서남해 지역 대표 농산물인 양파를 벼재배처럼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100% 기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음식에서 필수적인 식재료인 양파는 신안군의 대표적인 소득작물로서 한때는 1,500ha까지 재배되었으나 수입농산물과 가격경쟁, 일손 부족으로 재배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현재 802ha에 344억 원이 생산되고 있다. 신안군은 8월 24일 신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군의원, 관내농협장, 유통업체, 생산자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한 ‘신안군 발작물 기계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파·마늘생산자대표 등 8개 관련 단체 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노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으로 수년 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에 대한 절박한 우려”를 전달하였다.

박우량 군수는 “양파의 기계화를 위해 먼저 내년부터 시범으로 600여 톤의 양파가 톤백수매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2030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관내농협 등 유통법인과 협력하여 양파는 물론 마늘까지 벼농사처럼 100% 기계화가 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신안군은 올해 5월에 농촌진흥청 등과 협력하여 자은면 등 3개 지역에서 양파, 마늘 수확연시회를 통해 참여 농가들로부터 만족하는 일관기계화 기술을 정립하였다.

앞으로 생산자단체가 중심이 되어 발작물 기계화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농가 교육을 하고 유통의 주체인 농협 등 민간 유통의 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필요한 국·도비 및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안=이덕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요즘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